



중학생 이하
우리 아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아동 1인당 현금(계좌) 지급

지급 대상·방식



미취학 아동
'14.1월~'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 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학교 밖 아동
'05.1월~'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 신청기간: 9.28.~10.16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기획, 선생님의 에듀테크 역할을 키워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59 2020 OCTOBER

12 교육포커스

코로나 블루, 그 해법 찾기
①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16 진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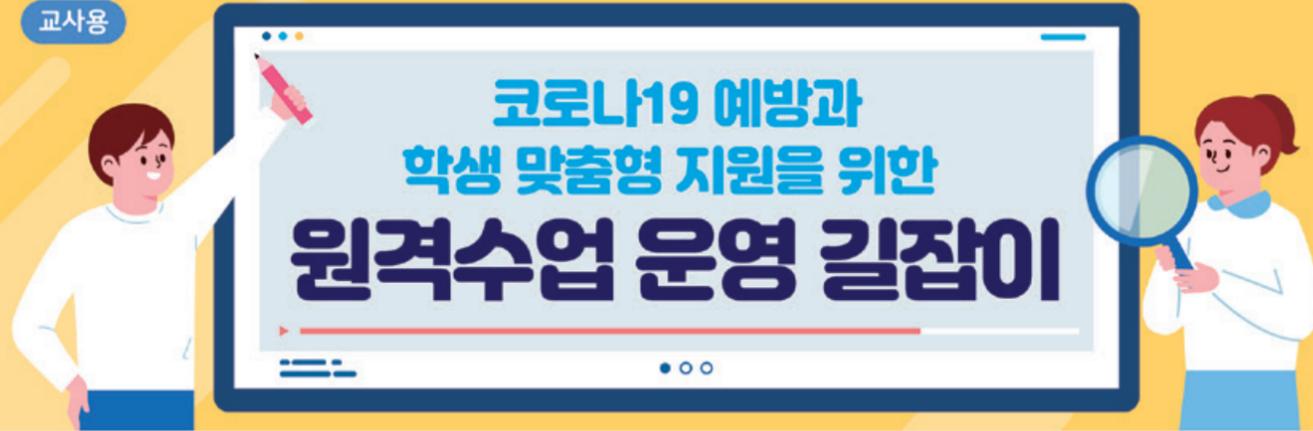
규제 허파로 날개 단 미래 핵심산업
드론 분야

36 정책을 말하다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돌봄 공백 없앤다



교육부



코로나19 예방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길잡이

원격수업 전후 실시간 조·종례 운영



방식

- 실시간 화상 플랫폼 활용 또는 학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룹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내용

- 교과별 수업시간, 학습플랫폼 활용 안내, 교과별 수업준비사항, 피드백 및 평가사항 등



미참여 학생의 경우에는 유선전화 및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 전달 및 특이사항 파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활성화



단계적 확대

-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점진적 확대
-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한 피드백도 포함



수업시간 준수

-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준수
-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유·초등 1~2학년

- EBS 및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하되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 상담 활성화

학생·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운영



상담방식 및 기준

- 유선전화·개별 SNS 등을 통해 교사 - 학생·학부모간 소통
- 주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소통·상담



상담내용

- (학습상담) 일일·주간 학습 주요포인트 및 학습 시 어려움 상담 및 피드백
- (심리상담) 걱정·우울감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 심리상담*

* 필요 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상담과 연계

수업 전 교육과정 재구성 등 확인



학습량 적정화

- 교과별·학년별 협의회를 거쳐 성취기준 등 재구조화하여 핵심내용 중심으로 수업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시자료집(초·중·고) 참조 : 에듀넷·타-클리어 탑재



평가방안

- 교과별·학년별로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구안·공유
- *원격수업 학생평가 안내 자료집(초중고) 참조 : 에듀넷·타-클리어에 탑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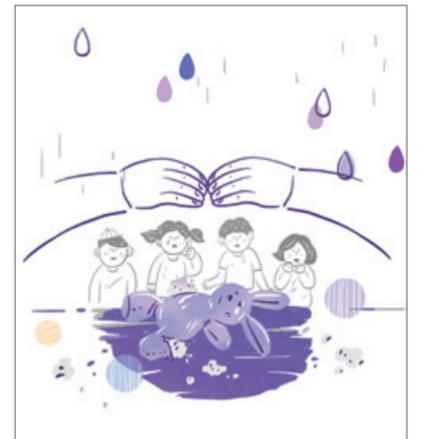
12

교육포커스

코로나 블루, 그 해법 찾기_ ①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삶 속에는 불안이 일상화됐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한다.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행복한 교육>은 3회에 걸쳐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①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 ② 영양 불균형·운동 부족에 놓인 아이들
- ③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



21

특별기획

선생님의 에듀테크 역량을 키워라

4월경 원격수업을 시작한 이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격수업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샘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지식샘터란 무엇인지, 지식샘이 되는 방법, 그리고 예비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계획을 소개한다.



Contents



Cover story



“땅에 사는데, 다리와 날개가 없는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북 안전초(교장 김승기) 1~2학년생이 태블릿PC를 활용해 검색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하고 있다. 전교생 26명의 작은 시골 학교인 안전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학교방역이 강화됐을 뿐,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하여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기획

21 선생님의 에듀테크 역량을 키워라

대한민국 선생님들 지식샘터에 모여라!

“나는 이렇게 지식샘이 되었다”

에듀테크(교육기술) 활용 수업 관련 콘텐츠 가득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지식샘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예비교원 에듀테크 역량 키운다

정책

33 더 넓고 깊은 정책

학부모 영상교육, 가정에서의 심리방역 강화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돌봄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_ 동아시아시민교육

04 교실혁명

박지웅 안전초등학교 교사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교실

08 꿈이 영그는 현장

선일비즈니스고등학교
SI 고등학교·코스형 고교학점제로 새 도약

12 교육포커스

코로나 블루, 그 해법 찾기
①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16 진로탐색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날개 단 미래 핵심산업

34 이슈

학부모 영상교육, 가정에서의 심리방역 강화
코로나로 인한 ‘학생 우울증’ 날려버리는 방법!

36 정책을 말하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돌봄 강화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돌봄 공백 없앤다

40 교육자치시대

인천광역시교육청_ 동아시아시민교육

44 이달의 교육뉴스

인공지능, 학교교육 속으로 외

47 통계로 읽는 교육

2020 교육기본통계 외

50 교육 소확행

왕따 당해봐서 참 다행이다

52 이야기 인문학

가을에 떠오르는 시,
운동주의 <별 헤는 밤>

54 교사상담실

무기력한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

56 똑딱똑딱! 자료실

OBS를 활용한 수업 디딤 영상 만들기

58 찰칵

추석

60 명예기자 리포트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국제포럼 외

발행일 2020년 10월 10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7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지웅 전북 안전초등학교 교사

시골 학교에서 만난,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교실

전북 안전초등학교 박지웅 교사는 올해로 교직 10년째다. 2013년부터는 시골 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학급캠프를 기획·운영해 왔으며, 거꾸로실험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학 수업연구에도 매진해 오고 있다. 전교생 26명의 작은 학교에서, 현재 담임을 맡은 2학년생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1

66

올해로 8년째,
시골 학교 아이들의 관계성 회복은 물론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한 '학급캠프'를 기획,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99

“땅에 사는데, 다리와 날개가 없어요. 먹는 건 육식! 자, 이제부터 책상 위에 있는 카드에서 어떤 동물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스마트기기로 검색해서 찾아도 좋아요.”

9월 23일 오후, 전북 안전초등학교(교장 김승기) 1~2학년 학생들의 5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 ‘어떤 동물에 날개가 달려 있는지, 혹은 다리가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하늘과 땅, 물 등 살아가는 곳은 어디인지’ 등등. 이날 수업의 주제는 바로 동물 분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다. 이 수업은 특히 1~2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무학년제 프로그램. 수업에 참가한 학생은 2학년 3명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다. 농촌 지역 소규모학교인 안전초교의 전체

학생은 26명(1999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되면서 안전초중고등학교의 현재 전교 학생 수는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60명이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박지웅 교사(34)는 소규모 시골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마을체험 교육과정, 그리고 ‘학급캠프’ 등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누구보다 앞장서 오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학 수업연구

“오늘 이 창체 수업은 아이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배우게 될 과학 교과 ‘분류’ 단원의 엮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관찰하면서, 동물 분류 기준에 대해 미리 배워보는 시간이예요.”

박 교사는 동물카드와 스마트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연신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의 몰입도를 높였다. 올해로 교직 10년째인 박 교사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학 교과서 검토위원 등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그가 활동해온 전북지역 과학교사모임의 ‘거꾸로실험’ 연구는

- 1_ 전교생 26명의 안전초 박 교사와 1~2학년생들
- 2_ 학부모와 함께하는 SW학급캠프



2

학생활동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학 수업의 새로운 모형이자,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고 그는 소개했다.

“흔히 과학 교과서의 실험 구성은 원인-과정-결과 공식에 따라 구성됩니다. 반면 저희가 주목하는 ‘거꾸로실험’에서는 이 순서가 원인-결과-과정의 순으로 혼재해서 구성돼 있죠. 실험 결과를 미리 제시한 뒤, 역으로 그 과정을 탐색해 나가다 보면, 그 실험에 참가하는 아이들의 사고능력은 그만큼 더 극대화되고, 확장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얼음을 아이들에게 제시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빨리 한쪽 얼음을 녹이는 미션을 부여하는 것. 이 경우 아이들은 다양한 사고를 통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터득해 나아가게 된다는 부연설명이다.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 여기 모여라!”

박 교사는 올해로 8년째, 시골 학교 아이들의 관계성 회복은 물론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한 ‘학급캠프’를 기획,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한 달에 1~2회 운영됐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정성을 쏟아왔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학기 중 1회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의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자는 취지가 더 컸었죠. 그 당시, 제가 담임했던 반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반 친구들과 자연스

럽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가 학교에서, 혹은 가까운 야외에서 함께할 수 있는 캠프를 구상하게 됐지요.”

해를 거듭하면서, 이 학급캠프는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 교육과도 연계됐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더딤요소를 해소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추가됐다. 이전 부임지에서 기획된, 수학을 싫어하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학 밤샘 캠프’가 그 좋은 예. 밤을 새워가며 친구들과 천체 망원경을 통한 별자리도 관측하면서, VR을 활용하여 실제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는 체험도 한 바 있다. 박 교사는 현재 전북수학산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는 수학교육 자료를 개발, 수업에 적용해 오고 있기도 하다.

3_ 연신 질문하며 수업에 몰입하는 학생들

4_ 2013년부터 시골 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학급캠프’를 운영해 온 박지웅 교사.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학급캠프는 어렵게 됐지만, 대신 평소 익혀뒀던 영상제작 등 원격수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지난 8년 동안 이 학급캠프에서 늘 공통으로 빠지지 않았던 프로그램은 바로 독서. 지도교사는 물론,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주제의 책을 골라 자유롭게 독서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가 학생이 저학년일 경우에는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책 읽어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기도 한다.

평소 익혀뒀던 영상제작 등 노하우 나눔실천

“캠프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은 역시 요리를 할 때였어요. 텃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도 수확하고, 아이들이 불을 피워 직접 고기도 굽고요. 학급캠프에서의 체험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오래도록 추억으로 간직하기를 바랄 뿐이죠. 실제로 제자들을 졸업 후에 다시 만나면, 학교에서 캠프 할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녀석들이 참 많아요.”

소규모학교이다 보니 이 학급캠프도 무학년 연합팀으로 꾸려질 때가 있다. 6학년과 1학년이 한팀이 되는 식이다. 이때 6학년 형들로서는 책임감을 배우고, 또 저학년은 형들을 믿고 캠프를 맘껏 즐길 수 있게 된다고.

1~2학년 아이들의 창체 수업을 참관하던 9월 말 현재, 안전초교는 청정한 지역환경과 전교 학생수 기준에 따라 다행히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원격수업이 시행될 때만 해도 박 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야 했다고. 각종 수업자료와 동영상 제작, 그리고 전북지역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제작 강의 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온라인 원격수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동료 교사들에게 이전부터 교육 동영상 제작하면서 익혀두었던 노하우와 꿀팁들을 나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2학년 저희 반의 급훈이 바로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교실’입니다. 제가 교사로서 바라는 소박한 꿈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반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신나고 재미있게, 또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 제 중점연구 분야인 과학·수학 교과 등 수업연구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더욱 정진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교사로서 늘 새로운 학문 분야의 연구와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지웅 교사는 그가 속해 있는 이 교육공동체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고도 했다. ②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AI 고등학교·코스형 고교학점제로 새 도약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이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안재민)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9개의 코스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공모한 인공지능(AI) 고등학교에 선정돼 내년부터 학과가 전면 개편되기도 한다.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를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글 양지선 기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는 마케팅경영과, 스마트금융회계과, 글로벌무역과, 디자인콘텐츠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며 상업계열에 특화된 실무인재를 양성해왔다. 학교는 70%에 달하는 높은 취업률로 ‘낙오자 없는 학교’를 자랑한다.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 중 취업률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안재민 교장은 “직접 학교를 선택해서 온 아이들인 만큼 상위권 학생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진로를 설정해서 졸업하도록 책임지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졸업생들은 주로 금융·회계·무역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과 공기업이 30%, 중소기업에 70% 해당한다. 또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통해 매해 30명 이상이 동국대,

중앙대, 홍익대, 경희대, 숭실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 입학하고 있다. 학교는 특히 창업·발명교육을 강조해 특허를 출원하고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등 체험중심교육에 강점을 둔다.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경진대회 등에서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해왔으며, 학교 차원에서의 특허출원만 2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도부터는 빅데이터 교육을 더해 빅데이터 기반 상업·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안재민 교장은 “특성화고는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진다.”라며 “이제 진학이 아닌 진로를 중점으로 두고,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교육과정 더해 미래인재 양성 준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 특성화고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선일이비즈니스고를 빅데이터 고등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학교는 빅데이터소셜미디어과와 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로 학과가 전면 개편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측은 기존 학과 교육과정에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추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빅데이터마케팅4.0’, ‘미디어 빅데이터분석’, ‘마케팅빅데이터분석’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실무 중심의 신규 교과서 개발에도 나선다.

교사들도 빅데이터 관련 연수를 통해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교과 교사 대상으로 우수 기업체 및 AI 대학원 연계 심화과정 등의 유관 연수도 진행한다. 학교는 미래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자재도 확보한다. 이미 지난 2018년 구축된 미디어실에서는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콘텐츠를 녹화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덕분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교사가 전부 직접 만든 수업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안재민 교장은 “특성화고는 보통 공업계열이 중심이 되는데, 본교는 전통 상업교육을 고집해오면서도 신입생 미달 없이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빅데이터 고등학교로 재편되면서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 2_ 상업계열에 특화된 실무인재를 길러온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는 내년도 빅데이터 고등학교로 재편되면서 빅데이터 기반 상업·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사진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것임)



내년도 9개 세분화된 코스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난해 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도 선정된 선일이비즈니스고는 올해 학점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부터 2학년(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선일이비즈니스고 고교학점제의 특징은 학과 내 코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단순히 과목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한 점이다. 내년에는 △마케팅 △총무 인사 △재무회계 △창구사무 △보험손해사정 △유통관리 △수출입관리 △시각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총 9개로 세분화된 코스를 운영,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같은 전공 안에서도 학생 개개인이 선택한 코스에 따라 과목은 다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마케팅경영과여도 마케팅 코스를 선택한 학생은 ‘창의경영’, ‘전자상거래 일반’, ‘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 등의 과목을 듣지만, 총무인사 코스를 선택할 경우 ‘세무일반’, ‘회계실무’, ‘사무행정’ 등 별개의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로써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인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 중이다. 계절학기 형태로 학생들이 방학 중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학점제 대비 졸업생 추적·진로동아리 활성화

선일이비즈니스고가 실시할 코스형 고교학점제에서는 사전 진로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선정된 이후 구성된 교원학습공동체에서는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다.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교내 진로동아리 활성화와 학업계획서 경진대회, 고교학점제 학생지원단 등을 구체적인 지원 방법으로 내세웠다.

교내 진로동아리에는 졸업생 선배의 직장을 탐방하며 실

66 선일이비즈니스고는 코스형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로 선택을 돕고 관련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99

- 3_ 교내 미디어실에는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콘텐츠를 녹화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 4_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생들에게 배부할 코스안내서 책자와 실제 졸업생들의 코스별 진로 사례집
- 5_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선정된 이후 구성된 교원학습공동체에서는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다.



제 직업 현장을 둘러보는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선배 한 명과 일대일 멘토·멘티로 만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취업멘토반’이 있다. 학교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한 졸업생과 인연을 이어오면서 재학생들은 선배들을 통해 막연하게 그려왔던 미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매달 2~3회씩 졸업생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 코스안내서에도 졸업생들의 코스별 진로 사례를 소개해 학생들의 선택을 돕는다. 올해 새롭게 구상한 학업계획서 경진대회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인의 희망 진로와 흥미, 선택 과목을 생각해보고 2~3학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숙례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간이 부족한데, 나만의 학년별 진로 로드맵을 세울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한 동아리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직접 배우고 싶은 과목과 교과 난이도에 대한 의견을 받음으로써 교육 주체가 함께 학점제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②



“학교 덕분에 취업 성공... 다시 돌아가도 특성화고로 진학할 것”
최경원 학생(마케팅경영과 3학년)

현재 선일이비즈니스고의 학생회장이자 마케팅경영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경원 학생은 이미 지난 겨울방학부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수업을 들으며 취업 준비에 힘써왔다. 그 결과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 취업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 당당히 합격한 것에 대해 그는 “100% 학교 덕”이라고 얘기한다.

Q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유는?

A 일반고에서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보다 사회 경험을 먼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Q 학교에서 취업에 어떤 도움을 줬나?

A 처음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3학년이 되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과 취업 대비 면접을 준비하는 교과목을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3학년은 방과후학교가 무료로 진행되는데, 수업 외적으로 유용한 취업 관련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Q 특성화고의 장점은?

A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특히 남들과 다른 특별한 스펙을 쌓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지만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융통성도 기르고, 여러 대회에 나가 미리 관련 경험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Q 앞으로의 꿈은?

A 후진학 제도를 이용해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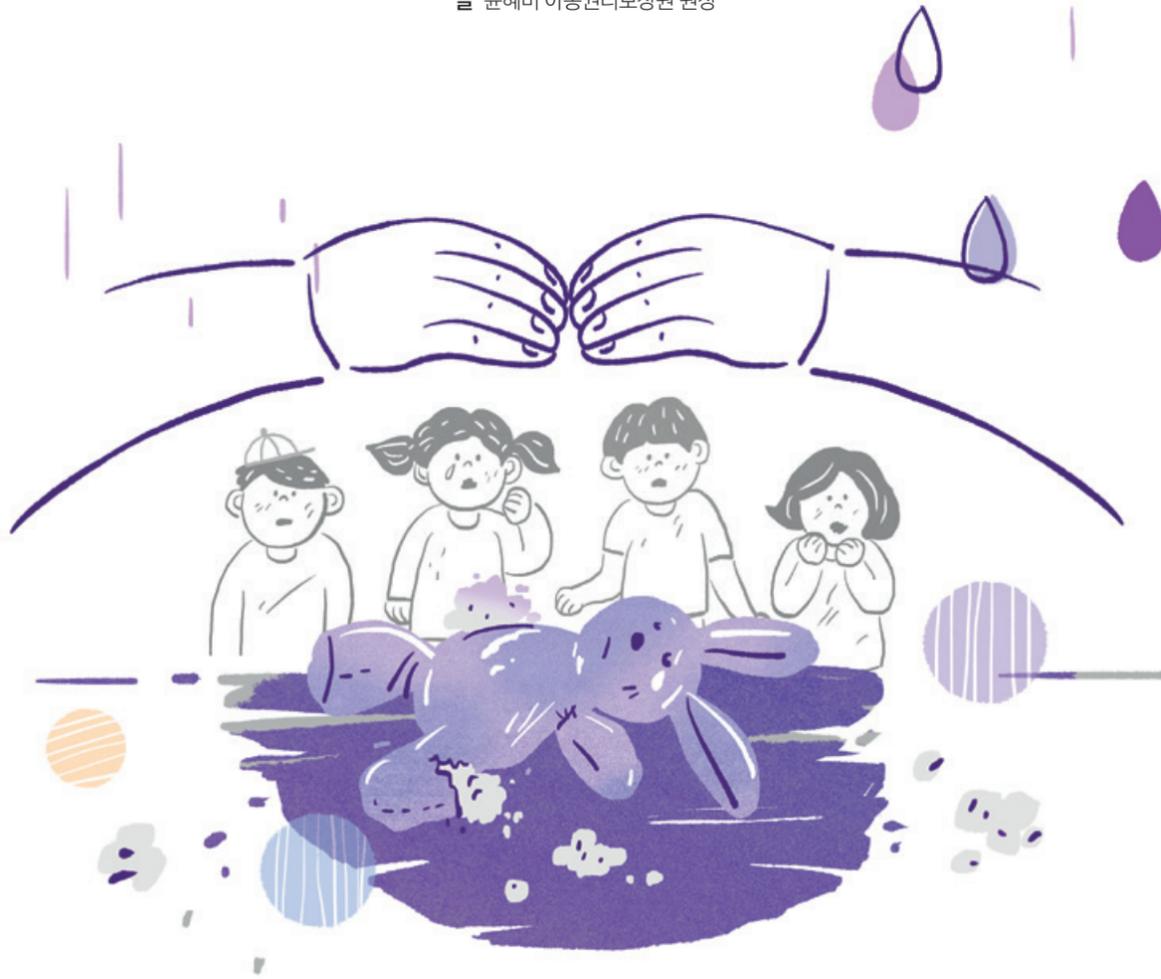
Q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스스로 공부에 대한 확신이나 재미가 없다면, 굳이 일반고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성화고에서는 3년 동안 나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요. 기업 운영과 창업 교육 관련 경험을 한 후 진로를 선택하거나,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도 이용할 수 있죠. 만약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도 특성화고로 진학할 거예요.

코로나 블루, 그 해법 찾기 ①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아동은 고립되는데 신고율은 ↓... 적극적 대응 필요

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삶 속에는 불안이 일상화됐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한다.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행복한 교육>은 3회에 걸쳐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② 영양 불균형·운동부족에 놓인 아이들 ③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2020년의 3/4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매일 아침 뉴스가 코로나19 특보로 시작되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되었으며, 교육과 경제, 문화 및 종교 생활 전체가 바이러스 전파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조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유난히 가혹하게 다가오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주시지 않는 신음소리를 알아채기도 어려운 인구집단이 있다. 바로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아동학대가 빈발하며,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발견율과 발생률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우리는 몇 건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였다. ‘천안사건’으로 알려진 아동 사망 사건과 ‘창녕사건’, 그리고 최근의 ‘인천 형제 화재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피해자는 모두 10세 미만의 아동이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의 결과였다. 2000년 최초 통계 이후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 2014년 1만 건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발견율¹은 2018년 2.98로 호주나 미국 등 타 국가의 9.10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학대 건수의 증가는 학대의 절대빈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인식개선으로 신고가 증가했다는 뜻이며 학대발견율 2.9는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가 많다는 뜻이다. 피해 아동은 초등생 비율이 가장 높고, 학대 행위자의 80%가 부모고, 40대가 가장 많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상승하면서 아동복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의 학대와 방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주의(report system)에 기반하고 있다. 즉,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112에 신고해야만 경찰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조사 등 개입을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높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아이들의 방과 후 보호를 맡았던 전국 4,000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²와 170여 개의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휴관으로 인해 아이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니, 학대가 발생해도 발견이 어렵겠다는 우려가 깊었고, 이는 시간이 가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신고 의무자이면서 단독 직군으로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2018년 19.1%) 초·중·고 교사와 각종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신고율이 격감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만한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은 크게 높아졌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한 사실은 ‘발견율은 감소해도 발생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엔인권위원회(2020)에서는

1 아동학대발견율: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로, 발생률이 아님.

2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원의 약 70% 아동이 긴급돌봄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의 고립으로 인한 폭력, 성 학대, 착취,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이므로 각 국가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유형의 특성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³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대개 적극적인 가혹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소극적이더라도 방임이 누적되면 그 폐해가 신체·정서적 학대 폐해 못지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아동방임이 폭증했을 것으로 본다. 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문을 닫고 아동이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 부모가 한정된 돌봄휴가도 쓸 수 없는 경우나 일하는 한 부모가정 등에서는 교육적 방임은 물론, 물리적·정서적·의료적 방임에 취약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전국의 아동 3,175명을 조사한 결과, 42.8%가 성인보호자 없이 또래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 중 40%는 3~5시간 이상 혼자 지낸 적이 있다고 답하여 돌봄 공백이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는 또 다른 아동학대유

형은 확장된 온라인 환경과 관련된 디지털 성 학대 피해이다.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아동의 디지털기기 접속이 늘었다. 온라인 환경은 은밀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그루밍⁴을 통해 아동을 유인하기 용이하고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그 예이다. 확장된 온택트(on-tact) 상황이 방임과 중복되면 아동의 성 학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대응 길 찾기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APO)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중에 따라 상담과 교육 및 자원연계를 결정하거나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제3의 장소에서 보호 양육하며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조사나 서비스 제공에서는 대면(face-to-face)과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2~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서비스와 가정방문이 국가방역 정책상 원칙적으로 차단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사회·경제·심리적 상황과 지역사회 자원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다. 이들 가정은 대개 2개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각 서비스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규칙,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이 상이하여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조기 발견과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시대의

³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⁴ on-line grooming: 온라인 등을 통해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를 악용해 성적인 목적을 이루는 범죄 수법.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성 착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는 바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존의 체계로는 발견과 연계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방역지침과 아동학대 대응 서비스 원칙이 충돌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2년간의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보편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신고 의무자 직역의 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 비대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원격수업 시 확인하는 교육부의 ‘건강상태자가진단’ 앱에 아동안전 문항을 추가하여 교사는 아동의 돌봄 공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이 예상되면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방과후돌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서비스 등)를 연계하여 안내하고, 일정 횟수 이상 공백이 누적되면 학교장이 아동을 등교 조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비상한 상태에서는 학교도 학대 예방 자원으로서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학교의 긴급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지역돌봄기관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 필수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률적인 대면 서비스나 가정방문 중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계별로 방역 필수요건을 강화하여 아동안전 확인이 허용되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올 10월부터 신규 배치되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학교의 교육복지사나 상담교사 등의 위기가정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안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보호자가 돌봄이나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 등을 두어, 아동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학대 방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제한되어 있는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긴밀한 상호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확장된 온라인에서의 아동안전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나 아동복지서비스기관에서의 정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확장된 온라인이 아동의 참여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순기능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건강과 안전, 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분명 아동학대 상황의 위기이다. 이제 코로나 19로 극명하게 드러난 아동학대 방지의 빈칸을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채워나감으로써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아동학대 대응책을 설계할 기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모두의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다짐을 할 때다. 



규제 혁파로 날개 단 미래 핵심산업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기 혹은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물체를 말한다. 처음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돼 활용됐으나, 현재는 소방·방재, 미디어, 운송,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해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드론은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비약적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정리 편집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 혁신성장 직업전망



활용 분야



물류·운송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 (FAA)으로부터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프라임 에어’를 승인받았다. 미국 유통 기업인 월마트도 최근 드론을 이용한 식료품 및 가정용품 배송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GS리테일이 산업부와 손잡고 드론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드론 배송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도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물류망을 갖추고, 재난 상황 시에도 구호 물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농업 드론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된다. 프로펠러 바람을 이용한 방제 작업은 집중 살포가 가능하면서 농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드론 파종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종자에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바람에 날리지 않는 무게로 늘린 후 파종하는 실험을 진행해 발아율 95%를 기록했다.

넓은 구역을 살펴야 하는 대규모 농업 지대에서는 항공촬영을 통한 작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드론의 열 감지 카메라와 적외선을 활용해 해충을 식별할 수 있다. 야간에는 등을 밝혀 직접 해충을 모으는 방식으로 방제도 가능하다.



방송촬영 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등의 업계에서는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드론 저널리즘 시대를 맞아 취재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을 드론이 대신 촬영해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14년 탄자니아에서 사자의 일대기를 촬영하는 데 드론을 이용했고, 미국 뉴스 채널 CNN도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안 취재 등에 드론을 활용했다. 국내 방송사들도 촬영용 드론을 많이 이용하면서 최근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건설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화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일이 잦는데, 이때 건설 드론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전자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토지를 측량하고, 높은 곳에서 현장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 등고선지도, 상황도 제작에 활용된다.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준공 현장부터 완공 현장까지 살펴보면서 진척 상황을 한눈에

국내 동향 및 향후 전망

파악할 수 있다. 오래된 건축물이나 터널 등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점검하거나 산소농도 측정과 위험 요소 확인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기타 드론은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산불감시나 진화, 인명 수색 등에 활용된다. 또한, 해양이나 기상,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측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 소비자를 공략한 취미용 드론도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에 힘입어 전체 드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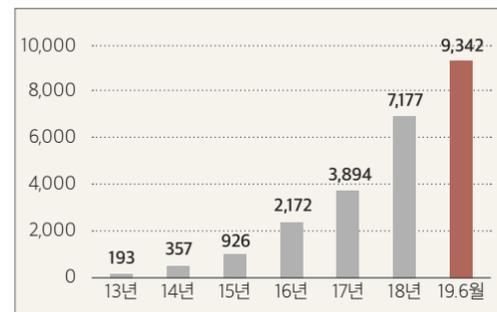
우리 정부는 드론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국가 주도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물품 수송, 산림 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 조사 및 순찰, 통신망 활용, 해양 관리, 농업 지원,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제한된 구역에서만 날릴 수 있는 드론을 도심 내에서도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특구를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하는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태양광 AI 드론을 활용한 제주 해안선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주했으며, 장시간·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드론과 수소전지 드론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드론 물류 배송에 도전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상업지구의 고층빌딩 숲을 통과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다양한 음식을 평균 10분 이내에 배달하는 실증 시연을 시행했다. 드론의 자동 이착륙과 경로비행, 드론 배달 전용 앱을 이용한 주문과 배송확인, 드론 스테이션 활용 등 적용 가능한 기술들도 함께 실증했다. 또,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실증도 이뤄졌다.

정부는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농·임업, 건설, 측량, 영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표] 드론기체 신고



출처: 국토교통부



Mini Interview



곽재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교수

Q 교수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본교에는 1998년 3월에 건설계열 지적전공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기술평가위원, 부산시 지적재조사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드론공간정보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우리 학과에서는 드론, 공간정보, 드론 활용 등 크게 3개 분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과목으로 살펴보면 드론 분야에서 드론운용법, 드론조종 연습, 드론영상촬영기법, 공간정보용 드론제작(캡스톤디자인)을 배웁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공간정보(토지정보 포함)에 대한 기본이론과 응용기술, 그리고 지도 제작과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에 대하여 배우게 되며,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드론사진측량실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활용 분야에서는 드론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안전진단기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Q 드론을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A 드론이 일반 대중에 인식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되어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개발을 위한 전자, 통신, 전기, 프로그래밍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활용도 필요합니다. 드론은 각 적용 분야의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익혀야 하는 첨단 과학의 집합체이므로 과학과 공학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가진 학생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Q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흔히 학생들이 '드론 조종이 드론의 모든 것'인 듯 드론을 날리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만 드론 조종기술은 기본이며 기초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론 관련학과(가나다순)

- 가톨릭관동대 무인항공학과
- 강원도립대 ICT드론과
- 경운대 무인기공학과
-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 대경대 드론산업과
- 동강대 공간정보드론과
- 마산대 드론로봇공학과
- 배재대 드론·로봇공학과
-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
- 수성대 드론기계과
- 신성대 드론산업안전과
-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 인제대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 창원문성대 드론공간정보과
- 초당대 드론학과
- 충북도립대 컴퓨터드론과
- 포항대 국방드론항공과
- 한국국제대 무인항공기학과
- 한국영상대 드론영상정보과
- 한서대 드론응용전공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_9.22.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대학 교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 겸임교사 등, 유치원 교원
- 「사립학교법 시행령」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선생님의 에듀테크 역량을 키워라

4월경 원격수업을 시작한 이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격수업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샘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지식샘터란 무엇인지, 지식샘이 되는 방법, 그리고 예비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계획 등을 소개한다.

- 22 대한민국 선생님들 지식샘터에 모여라!
- 26 “나는 이렇게 지식샘이 되었다”
- 28 에듀테크(교육기술) 활용 수업 관련 콘텐츠 가득
- 30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지식샘터’
- 3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예비교원 에듀테크 역량 키운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지식샘터에 모여라!

글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교육연수원 연구위원

지식샘터는 이렇게 탄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로 원격 수업을 전격 도입하였다. 그런데 원격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막연하기만 하다. 무엇을 어떻게 수업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180여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20~4.27)를 하였다. 그 결과, 선생님들은 수업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쌍방향 실시간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연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원격연수 등을 가장 희망했다. 연수의 내용도 다양한 플랫폼, 저작도구, 화상 도구 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이 '지식샘터'이다.

물론,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다. 1학기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사온 등을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으며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수업 동영상만 만들어 올리고 이를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많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로 콘텐츠를 개발·탑재하고 이를 학습하는 형태의 수업은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등 소통도 쉽지 않다. 또한, 유튜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이슈나 선생님들의 얼굴이 일반에게 공개되다 보니 초상권 등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이런 선생님들의 요구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원격수업의 문제들을 보완·해결하는 방식의 지식공유서비스가 필요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만든 공간이 '지식샘터'이다.

선생님을 위한 지식 공유 놀이터

'지식샘터'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이다. 어떤 분들은 지식샘터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선생님들의 놀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식샘터는 선생님들이 만들고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선생님들이 가진 작은 지식이라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연수를 제공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한계 등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요구를 선생님들 상호 간에 충족시켜주는 자율매칭방법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연수공간이 지식샘터인 셈이다.

지식샘터는 쌍방향 온라인 형태로 운영되며, 선생님들의 사전학습이나 사후학습 시 필요한 보충자료들인 문서, 영상, 링크 등을 제공하며, 비대면 실시간 강좌를 녹화하여 탑재할 경우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지식샘터는 지난 9월 1일 오픈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지식샘터'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educator.edunet.net)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식샘터는 온라인플랫폼, 교과콘텐츠 활용, 저작도구, 화상도구, AI(SW) 교육, 교육저작권 등 에듀테크 활용 영역 중 핵심적인 6개 영역의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또한, 모든 강좌는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66

지식샘터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99

‘지식 생산-공유-재생산’하는 선순환의 지식생태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수는 대개 집합형태의 대면연수로 특정 장소에 모여, 특정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이에 반해 ‘지식센터’의 연수는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연수를 지향한다. 또한 기존 연수는 특정한 선생님들이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지식센터’는 100%로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진다.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지식센터는 작은 지식이라도 나누고자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강사가 된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수강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며 살아 숨 쉬는 지식생태계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과 특징을 가진다.

기존 연수가 일회성이라면 지식센터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추후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즉 한 번의 연수로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없을 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연수내용을 학교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추후에 지식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다.

기존 연수가 일회성이라면 지식센터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추후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즉 한 번의 연수로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없을 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연수내용을 학교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추후에 지식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다.

[표] 교원 대상의 기존 ICT 역량 강화 연수와 지식센터 비교

구분	ICT활용 교원 역량강화 연수(기존)	지식센터
강좌개설	기관	개인(교원)
연수주제	기관에서 특정 주제 선정	교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연수방법	(대면) 토론, 강의, 프로젝트 등 (원격) 단방향 연수 동영상 제공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 도구 활용 비대면 토론, 강의, 프로젝트 등
연수운영	기관	개인(교원)
수강신청	공문을 통해 연수 안내 및 모집	‘지식센터’에서 원하는 주제의 강좌를 신청 및 매칭

지식샘이 되는 방법!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희망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좌를 만들 수 있다. 지식센터를 통해 지식샘으로 등록하고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대로 진행된다.

지식샘이 되려는 선생님은 지식샘으로 등록하고, 강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식센터는 교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에듀넷 교사회원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강좌 운영이 끝나면 수강생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한 후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수강생들이 수강한 내용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질의응답이나 요청에 의한 컨설팅 등 추수 활동을 통해 지원한다.

[그림] 지식샘이 되는 방법



개인 맞춤형 연수,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 기대

‘지식센터’를 개설하고 시범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높아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원격수업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길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식센터’ 서비스를 통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식센터를 통해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나는 이렇게 지식샘이 되었다”

글 이현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지식샘터 '토닥토닥 머신러닝 기초' 강좌 운영)

저에게 '지식샘'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닌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알짜배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

‘출근길에 유난히 공기가 맑다면 마스크를 깜빡한 것’이 우스갯소리가 된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마주하는 현실은 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라진 학교는 언제 봐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풍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학교의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학교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선생님들은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 조금이라도 수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교사 개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교현장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대규모 강의 연수보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끼리 모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의 만남도 망설여지는 요즘, 온라인으로 알짜배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식샘터의 오픈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소규모 강의 '학습자-연수자' 활발한 소통이 장점

지식샘터는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 연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라는 특성상 학습자와 연수자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막상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혼자서는 처음의 의지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 장점입니다. 게다가 5~6차시 정도의 비교적 짧지만, 결코 내용은 얕지 않은 알찬 연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존의 강의식 연수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상 '지식샘'으로 강의를 열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 기대어, 실시간 연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믿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제가 잘 아는 내용만을 담은 연수를 준비하기보다는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수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토닥토닥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인공지능 교육을 공부하는 '토닥토닥 머신러닝 기초'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 차시 수업이 이루어지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화상 강의실에 접속했습니다. 먼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부터 같은 학교 선생님까지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모두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강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해주신 덕분에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해 보니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비공개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기에 온라인 수업만이 가지는 장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편한 장소에서 여러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제가 대면수업이었다면 어려웠을 교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강의로 만나게 된 선생님들께는 함께 학구열을 불태웠다는 동료애가 느껴지기도 하고, 애뜻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더 좋은 연수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 지향

지식샘으로 선생님들을 만나며 온라인 연수 플랫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향한 의지, 교수자의 세심한 설계, 적극적인 소통과 좋은 내용이 담긴 쌍방향 연수라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는 학습자와 연수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식샘'이 될 수 있다는 지식샘터의 슬로건은 전국에 계신 더 많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지식샘'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닌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깊은 산속 웅달샘에 새벽에 일어난 토끼, 달밤에 숨바꼭질하러 온 노루가 한 모금씩 물을 마시고 가듯,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지식샘'에 놀러 가 배움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⑦

에듀테크(교육기술) 활용 수업 관련 콘텐츠 가득

글 양지선 기자

교원 간 지식공유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는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거꾸로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 및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온라인 연수 사이트다. 이곳에서는 교원 개인이 원하는 주제의 강좌를 신청해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대면이지만 생생한 강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지식샘터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해 원하는 주제의 강의

를 찾기 쉽도록 구성했다. 주요 콘텐츠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카테고리에서는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칸아카데미,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교육플랫폼의 활용법을 설명한다. **교과별 콘텐츠**에는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교과와 원격수업 방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유용하다.

저작도구 카테고리에서는 PPT와 OBS(영상 제작·편집 프로그램), 무료 디자인 사이트 및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아 수업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Zoom,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한 **화상수업**

방법도 소개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AI-SW교육** 관련 수업 방법에 대한 강의와 학교 수업자료 개발 시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관한 강의도 있다.

강좌수강을 원하는 교원은 지식샘이 개설한 강좌 중 수강신청을 하고, 일정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전체 실시간 강의 차시의 80% 이상 참여 시 이수증을 발급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종합교육연수원에 이수 기록이 관리된다. 강좌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강의 평가가 이뤄져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2

[그림] 지식샘터 주요 콘텐츠

강좌명	함께 살펴보는 원격수업 아이디어	효율적인 원격 수업 만들기	e학습터와 함께하는 easy 원격수업 만들기	에듀테크로 언택트시대 음악수업 도전하기	초등 고학년 AI 교육 어떻게 할까?	PPT를 이용하여 손쉽게 학습 콘텐츠 및 디딤영상 만들기	유튜브!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기	저작권, 우리도 지킬 거예요!
강좌소개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수업 아이디어 생성 및 공유 활동을 통해 동료 선생님들과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원격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실습을 통해 익혀본다. 줌, 패들렛, 줌인, 구글 드라이브 등의 여러 수업 도구를 이용해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원격수업 제작을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스마트폰 활용 사진/영상 촬영, 화면녹화 및 편집, 슬라이드쇼 녹화방법을 쉽게 배워본다.	구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는 더 힘들, 그래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다양한 악기들을 이용하여 합주하는 형태의 음악수업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진행해본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익혀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본다.	AI 교육이 무엇인지, AI 교육이 왜 필요 한지 등 AI 교육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적합한 AI 교육 방법과 사례를 실습으로 체험한다. AI 교육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선생님, AI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선생님께 추천한다.	원격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필요한 학습 콘텐츠 자료나 디딤영상을 제작 시 늘 사용하고 좀 더 익숙한 PPT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내 수업에 맞는 학습 콘텐츠와 디딤영상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유튜브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유튜브 시작하기, 유튜브의 채널 만들기, 간단한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유튜브 활용 팁을 함께 살펴본다.	저작권 기초 이론(학교 수업 관련 25 조 내용 위주) 개관을 살펴보고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과 중등 1~2학년 학생들의 저작권 수업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모색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지식샘	김도형 화순제일초등학교 교사 심민정 흥남초등학교 교사 강인성 부남초등학교 교사 유원진 대구산격초등학교 교사	박락주 평택송화초등학교 교사	김동준 소사벌초등학교 교사	조기석 해운대초등학교 교사	이동형 차산초등학교 교사	임종택 대구초등학교 교사	박옥수 대구성당초등학교 교사	김윤영 기수초등학교 교사
학습목차	1차시: 원격수업 이해하기 2차시: 원격수업 준비하기 3차시: 원격수업 실행하기(1)-체협하기 4차시: 원격수업 실행하기(2)-활동 및 사례 살펴보기 5차시: 원격수업 아이디어 공유하기	1차시: 줌으로 쌍방 수업 하기 2차시: 수업도구 활용하기 1 3차시: 수업도구 활용하기 2 4차시: 구글 활용하기 1 5차시: 구글 활용하기 2	1차시: 쌍방향 수업 짚고 넘어가기 2차시: 영상 만들기 도구 소개 3차시: Captura 화면녹화+Zoomit 4차시: 슬라이드쇼 녹화와 더빙 프로그램 활용 5차시: 디지털교과서로 실감나는 수업영상 만들기 6차시: 유튜브 영상탑재 및 e학습터 플랫폼 활용법	1차시: 음악 애플리케이션 소개 및 Garageband의 특징 알기 2차시: Garageband를 활용한 악기 연주 방법 익히기 3차시: Garageband를 활용한 것가락 행진곡 수업 살펴보기 4차시: 가요(썸이아, 트로트곡) 합주 도전하기	1차시: AI의 개념 및 이슈 2차시: AI 활용 사례와 미래교육 3차시: AI 교육 실습(1) 4차시: AI 교육 실습(2) 5차시: AI 교육 실습(3) 6차시: AI 교육 실습(4)	1차시: PPT 메뉴 및 기능 알아보기 2차시: 포토샵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미지 편집하기 3차시: 애니메이션 및 화면 전환(모핑)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4차시: 슬라이드에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더빙 넣기(클로버더빙) 5차시: PPT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기(시간 설정 및 간단한 영상 편집) 6차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며 학습 디딤 영상 만들기(주석 달기, 웹캠 활용)	1차시: 유튜브 계정 및 채널 생성하기 2차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도구 살펴보기 3차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기 4차시: 유튜브 콘텐츠 공유하기 5차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6차시: 유튜브 활용 팁 알아보기	1차시: 저작권법의 기초 이론 복습 2차시: 저작권 침해, 맞나요? 3차시: 저작권 학생 대상 수업적용-1 4차시: 저작권 학생 대상 수업적용-2 5차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수업 나눔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지식샘터'

글 교육부 이라닝과

지난 4월 교육부가 '온라인개학'을 발표할 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없고 온라인으로 학생과 소통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다들 이 비상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대체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노하우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샘터'를 구축하여 '선생님을 위한, 선생님에 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지식샘터는 개별 선생님들이 가진 에듀테크 역량을 교원 간 자유롭게 공유하는 비대면 연수 시스템이다.

기관 주도의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 교원이 연수의 주제 및 내용, 시간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식샘터에서는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 동료교사의 시선에서 간지러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현장 교사들의 참여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지식샘터' 서비스를 시범 개통하면서 시스템 안정성, 연수 효과성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수강생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강의 참여자, 지식샘터 지원단, 교사 유튜버 등 현장 교원 약 20명과 원격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10월부터는 더욱 활발한 교원들의 지식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식샘터 10월 이벤트 특강으로 「티튜버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노하우 대방출!」를 준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에듀테크 기기 활용법 및 교수법, 콘텐츠 제작 팁 등 교과별 원격수업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지금의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원에게 가장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이 외에도 지식샘터에서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장의 참여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식샘터 활성화를 위한 시연 행사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예비교원 에듀테크 역량 키운다

글 이순이 편집장

- 교원양성대학에 3년간 28개 미래교육센터 설치
- 예비교원 단계부터 원격수업 역량 제고
- 예비교원·교원·교수 협력한 학습공동체 운영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원격수업을 긴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동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플랫폼 활용, 쌍방향 소통 등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코로나19로 교수-학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부담감 또한 다르지 않다. 교사들이 지식샘터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역량을 키운다면, 예비교원은 양성 단계부터 원격수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개별화 맞춤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개별 교육과정, 온라인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단계별 교육이 도입되는 만큼 향후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원들의 에듀테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올해 10개 대학(교대·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 설치

교육부의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 강화 계획」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33억 원을 투입한다.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공모를 거쳐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권역별로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10개 대학이 2020년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2021년에는 10개교, 2022년 8개교로 총 2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먼저,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원격수업·실습 및 수업 콘텐츠 제작·실습이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쌍방향 원격 화상 강의실을 구축하고 AR, VR, 미디어 편집 등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공간도 구축한다. 즉 미래교육센터는 원격수업 실습실, 콘텐츠 제작실 등의 기반 시설(인프라)을 포함하여 예비교원이 원격교육 환경 아래 교육 내용과 방법, 수업 설계 및 시연 등을 통해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미래형 수업혁신 역량 키워 전문성 향상

예비교원은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학습관리, 팀티칭 등 원격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예비교원·현직 교원·교수가 협력한 수업 모형 연구, 학교 현장과 교원양성기관이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일례로, 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예비교원이 참여하여 수업 운영 및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Capstone Design Project) 등 연계를 통해 학교 현장과 연계된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현직교원과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학습, 거꾸로 수업 등 미래형 수업혁신 역량을 키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원격 멘토링 봉사 등을 통해 소외계층·지역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관리 등 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자 맞춤형 방과후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다가올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원격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우리 교육에 예비 교원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표] 4개 권역별 국립대학 현황

권역	지역	교육대(입학정원)	사범대(입학정원)	학교 수(교사/사대)
1	서울	서울교육대(355)	서울대(312)	7(4/4)
	인천	경인교육대(598)	인천대(98)	
	강원	춘천교육대(321)	강원대(240)	
	제주	제주대(114)	제주대(147)	
2	부산/경남	부산교육대(356), 진주교육대(319)	부산대(269), 경상대(292)	7(3/4)
	대구/경북	대구교육대(383)	경북대(299), 안동대(167)	
3	광주/전남	광주교육대(326)	전남대(277), 순천대(150), 목포대(75)	6(2/4)
	전북	전주교육대(285)	전북대(215)	
4	충북	청주교육대(286), 한국교원대(111)	충북대(235), 한국교원대(416)	6(3/4)
	충남	공주교육대(354)	공주대(407), 충남대(200)	
계		10개교+한국교원대, 제주대	14개교+한국교원대, 제주대	26(12/16)

● 색은 교원양성대학 중 올해 '미래교육센터' 설치 예정인 10개 대학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더 넓은 고 깊은 정 이 책



- 34 이슈
학부모 영상교육, 가정에서의 심리방역 강화
- 36 정책을 말하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돌봄 강화
- 40 교육자치시대
인천광역시교육청_동아시아시민교육
- 44 이달의 교육뉴스



학부모 영상교육, 가정에서의 심리방역 강화

코로나로 인한 ‘학생 우울증’ 날려버리는 방법!

글 이순이 편집장

코로나 경험,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닌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 성장하는 총체적인 삶의 장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교실이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부분 시간을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겪은 학생들이 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우리 아이 정신건강’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9월 23일(수)부터 총 5회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원인, 증상, 극복방법을 안내한다. QR코드와 인터넷(<https://bit.ly/3hURmQ2>)을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시청도 가능하다.

[표1] 온라인 생방송 학부모 공개교육(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회	일시	주제	강사
1	9.23.(수) 오후 8시	학교 및 학습, 또래 문제	유한익(서울우리아이 정신과)
2	10.07.(수) 오후 8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자해 및 자살 문제	박준성(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3	10.14.(수) 오후 8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문제	방수영(을지대병원 정신과)
4	10.21.(수) 오후 8시	사춘기와 감염병 문제 부모의 현명한 코칭	서찬석(행복한아이연구소)
5	10.28.(수) 오후 8시	우리 아이 양육 코칭 (아동)	오은영(소아청소년클리닉)



코로나 확진자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겪은 학생들이
사고 후유 정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표2]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예시)

자녀의 또래
관계 돕기

- **소심한 아이:** 조심스러운 기질의 아이일 수 있으니 조금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 **다툼이 잦은 아이:** 자기주장이 뚜렷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연습을 통해 가르쳐주세요.
- **거절하지 못하는 아이:** 친구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존감 지키기를 격려하고 연습합니다.

자살과
자해로부터
자녀 지키기

- 아이가 죽고 싶다고 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충분히 들어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 반드시 직접 물어봐 주세요.
-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주세요.
-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찾아봅니다.

SMART한
스마트폰
사용법

-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아이에게 더 재미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 원만한 가족관계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정해주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 주세요.

출처: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감염병 대응 학교 심리방역 안내서 개발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감염병 대응 학교 심리방역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안내서에는 정신과 이상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유행 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리방역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응급 심리지원을 학교현장에 맞도록 보완한 맞춤형 학교 응급 심리지원 절차와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정신과 전문의 비대면 상담, 24시간 청소년 모바일 상담, 자살위기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⑤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돌봄 강화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돌봄 공백 없앤다

글 이순이 편집장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고3을 제외한 학생들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에서 2단계(유·초·중학교 교내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유지)로 낮아졌지만, 사회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은 돌봄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8월경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 점검하였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인원을 확충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소독·방역·위생 철저, 방역물품 우선 비축

또한, 단위학교별로 인력 및 공간의 수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하고 있다. 단위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은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제온계, 마스크 등)도 우선적으로 비축하였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돌봄교실 내 밀집도 고려, 실당 10명 내외 운영
- '돌봄지원센터' 설치 교육현장·학부모 의견 반영
- 학교 공간에 지자체가 돌봄 운영하는 협력 사업 추진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흥인초 돌봄교실(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원활한 돌봄 위해 예산 집행 점검

2학기에도 돌봄 및 학사운영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집행되도록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왔다.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등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하여 돌봄교실에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해 왔다.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은 1,668억 원이며 시도교육청 예비비는 2,168억 원 규모다.

예산지원 사례

-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받아 단위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교육부·복지부·지자체·교육청 등)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로 서울 중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흥인초(3실), 봉래초(2실), 광희초(2실), 남산초(3실), 청구초(4실)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책임 운영·관리하는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흥성초(1실), 홍주초(2실)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돌봄전담사 파견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등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학교' 공간을 이용해 지자체가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은 낮추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어 초등돌봄교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2학기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돌봄교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급 및 초등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및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며,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급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

장애학생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
- **유·초등**: 특수인력 보조인력 등 돌봄 지원인력을 확대하여 여건 개선
- **중·고등**: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직업탐구·문화·자립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복지부) 참여 지원

[그림]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처리절차



인천광역시교육청_동아시아시민교육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66

동아시아를 소재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99

코로나가 일깨운 미래 시민교육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선별진료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시민도 있는 반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일상화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차별과 혐오가 강해지면서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에서는 같은 국민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애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지구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오염,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정치·사회적 갈등,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이슈 중심의 시민교육만으로도 벅찬데 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필요한 걸까?

첫째, 동아시아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 영토 영유권 문제, 무역 분쟁,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분쟁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의 해결은 자국민으로서의 관점뿐 아니라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살아가는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¹

둘째,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강해지는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필요하다.² 동아시아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 모두가 평화와 공존, 번영의 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만 동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면, 협력과 갈등 해결은 요원해진다. 이미 동아시아는 우리 삶의 주 무대이며,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동아시아 전문가가 향후 미래 사회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교육적 대비가 필요

하다. 동아시아는 세계 3대 경제권 중의 하나로³ 세계 경제 성장률의 약 40%를 책임지는 등, 앞으로 미래 사회는 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⁴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갈등의 동아시아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동아시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꿈을 찾고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왜, 인천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시작하는가?⁵

인천의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계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자질과 동아시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를 소재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다. 특히, 인천은 한반도의 관문을 여는 항구도시이자 각국의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도시이다. 더불어 하늘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국제교류의 중심지이자,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의 핵심도시이다. 또한 인천은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인천-남포-천진 항로를 선제적으로

1 설규주 외(2020).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 이슈중심 3호
2 설규주 외(2020).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간보고서.
3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4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동아시아시민교육 종합계획.
5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이하 내용은 2020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준비하는 평화도시’이며,⁶ 11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융합형 미래산업도시’이다. 인천은 창조성,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가치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 인천은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자 무대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에서의 동아시아시민교육은 2018년 교육정책 개발 협의회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지나왔다. 현재 초·중 20개교에서 동아시아시민학교를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초·중·고 6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다국어교육 성취기준과, 동아시아 진로교육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주요 도시 교육청과 기관협약을 통한 교류도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은 많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해나갈 것이다.

첫째, 인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우리 것 바로 알기’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 바로 알기’,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인천 바로 알기’는 인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고찰과 탐방을 통해 향토애호 의식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다국어로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고구려,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등의 탐방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지식 영역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 인권·사회정의·평등·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상호협력 등이 있다. 기능 영역에는 비판적 사고, 협력과 갈등 해결, 의사소통능력, 책임감 있는 행동 등이 있고, 가치와 태도 영역으로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관용, 동아시아 지속발전에 대한 실천 등이 주요 요소이다.⁷ 이러한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은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교육, 진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동아시아 이해교육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 측면에서의 상호관계나 역사와

문화, 환경, 갈등, 인권, 경제적 불평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9년 초·중·고별 동아시아시민교육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올해는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중이며,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는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다국어교육은 동아시아 국가 중 우리와 교류가 가장 빈번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의 언어를 학교가 선택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진로교육은 동아시아의 미래와 연계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실 수업, 외부 특강 및 체험 등의 형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올해는 동아시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중심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동아시아를 미래의 꿈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갈 것이다.

셋째,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국제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제교류는 아이들의 참여를 통한 실천역량 함양이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이해교육 등을 통해 간접 경험한 것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동아시아가 처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동아시아 평화캠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시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상하이 교육위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베트남 하노이, 일본 요코하마 교육청

등과 교류 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동아시아 관련 진학교육 및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다국어교육 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소재 연구소나 국제교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협력적 지원체제가 원활히 작동해야만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미래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얼룩지고 굴곡진 동아시아라는 무대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아이들 모두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통하며,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⁸

이 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온라인 공동 교육정책 2차 포럼(2020.9.24.)의 발제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⁶ 인천광역시(2019).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비전.
⁷ 허혜경·김혜수(2017). 글로벌 시민교육 창지사. p.150. 수정.

EDUCATION NEWS

01 인공지능, 학교교육 속으로

- ▶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적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도입
- ▶ 내년 2학기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신설

인공지능이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된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수학 학습 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이하 수학탐험대)' 서비스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된다. '수학탐험대'는 교육과정·교과서 기반으로 설계한 과제를 학생들이 학습하면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술로 학생의 학습결과를 분석·예측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한다. 학생 개인별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학습 성취를 예측하여 맞춤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예방할 수 있다. 콘텐츠는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게임 형식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그림에서 추상화된 기호수식 순서로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개인별 학습 데이터(학습 시간, 평가 결과 등)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학습 결손을 예측, 보완용 환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습 전 과정을 누적 관리할 수 있다. 누적된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는 교사에게 교수·학습을 위한

조언 등을 제공하고, 차기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시 개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16개국 총 34개 한국학교에도 '수학탐험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해외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내년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와 사회적 영향 등 체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인공지능 수학'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두 과목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2021년 2월에 보급할 예정이며, 시·도 핵심 교원(정보, 수학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초·중학교 인공지능 교육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발 예정인 '인공지능 내용 기준(안)'에 따라 보조 교재를 개발하여 2021년 상반기에 초·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02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전체적 '우수'

- ▶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 우수사례 확산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참여, 자유학기(년)제 연수 실적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생평가 관련 교원 연수, 초등교원 소프트웨어(SW)교육 직무 연수, 초등문해력 교육 강화, 직업계고 지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실적도 전체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등의 교습비 안정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과정 편성·운영 시 교원 수요 반영, 연수 질 향상을 위한 환류 체계 마련, 예비교원 양성기관(교·사대)과의 협력 등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는 울산시교육청과 제주·충북도교육청이 선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추진 실적,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연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도, 다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평가 결과, 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충남도교육청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은 향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는 17개 시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향상됐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과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미실시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의 우수사례가 전국의 교육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DUCATION
NEWS

03 직업계고, 졸업생 위한 취업 지원 모델 만든다

- 17개 거점학교에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지원
- 미취업 졸업생 위한 맞춤형 구직 정보 제공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모교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할 17개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에 나선다. 최종 선정된 3개 권역, 17개 거점학교는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예산지원을 받는다. 공업 10개교, 상업 5개교, 농업 1개교, 가사·실업 1개교 등 계열별로 골고루 선정되었다. 온·오프 융합 공간

구축(세그루패션디자인고), 취업 관리 앱 개발·활용(군산기계공고), 지역 특화 영농창업 공간 제공(홍천농업고) 등 졸업생 지원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들 학교는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공간을 조성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를 위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졸업생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졸업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졸업생들의 이력을 관리한다. 인근 학교 및 유사 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직업계고에 배포하여 졸업생 지원과 관련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0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비용 지원

-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20만 원·비대면 학습 지원 15만 원
-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해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며,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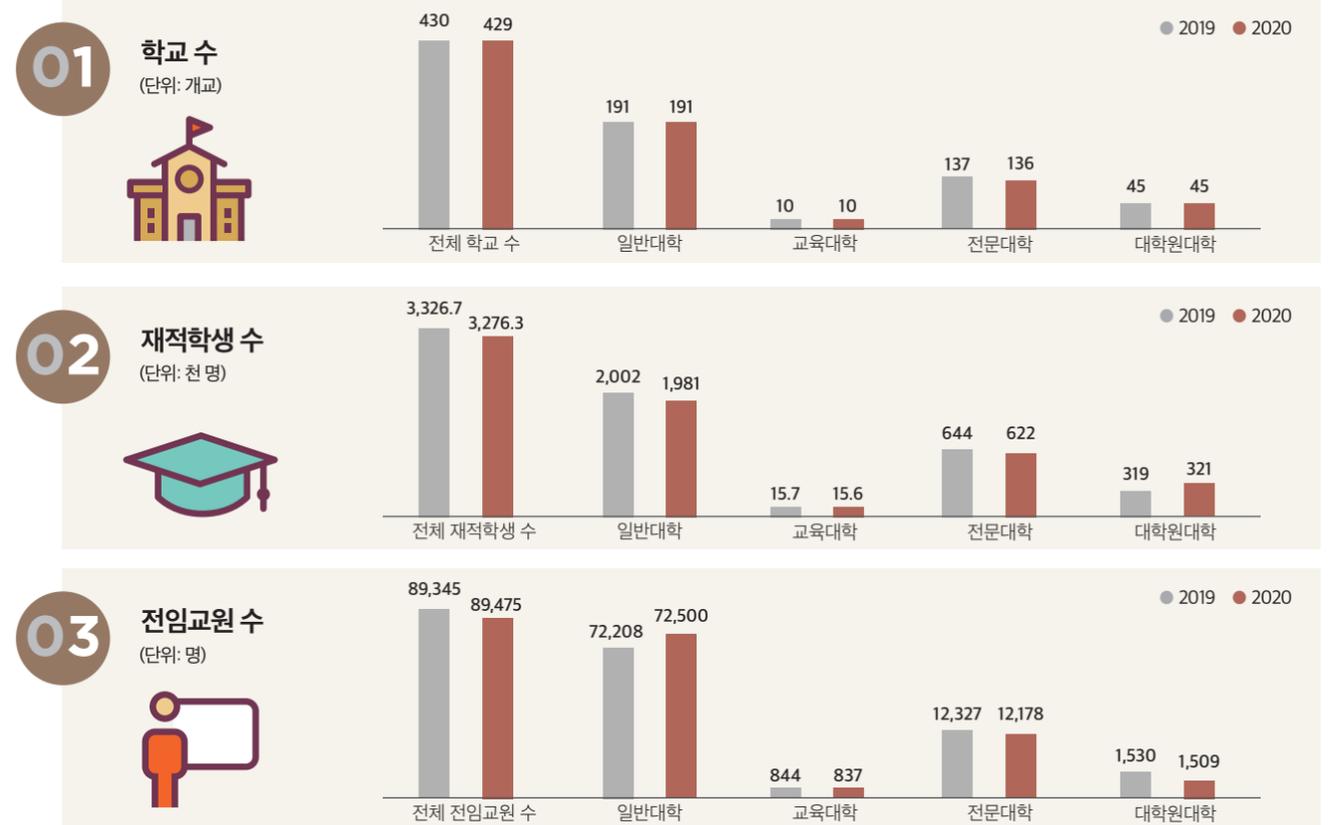
2020 교육기본통계

고등 교육통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발표한 '2020 교육기본통계'(고등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 수는 429개교로 전년(430개교) 대비 1개교 감소하였다.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수는 일반대학 19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6개교, 기타 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이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276,327명으로 전년(3,326,733명) 대비 50,406명(1.5%↓) 감소하였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53,695명으로 전년 대비 6,470명(4.0%↓)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3.6%(67,030명)

로 전년 대비 0.8%p 낮아졌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24.9%(38,337명), 몽골 4.5%(6,842명), 일본 2.1%(3,174명), 미국 1.2%(1,827명) 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전체 교원 수는 221,107명으로 전년 대비 63,423명(40.2%↑) 증가하였다. 전임교원은 89,475명으로 130명(0.1%↑) 증가, 비전임 교원은 131,632명으로 63,293명(92.6%↑)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비전임 교원에 강사(60,987명)가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 2020 초·중등 교육통계는 지난 9월호 참조



2020 우리나라-OECD 교육지표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초·중↑ 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2020 우리나라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명)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13명)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는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초·중등교사의 연간 수업은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017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으나, 민간부문의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4.1%)보다는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은 0.6%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으며, 민간재원은 1.0%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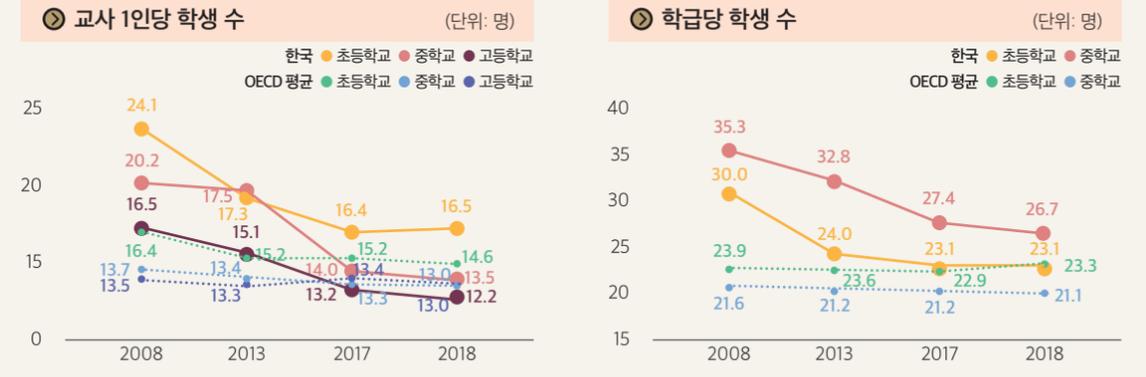
2017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로 전년보다 \$664(6%↑) 증가했으며, OECD 평균(\$11,231)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대학)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 6%↑, 중 10%↑, 고 1%↑)를 보였다.

2018년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6~14세 99.1%(OECD 98.2%), 15~19세 84.3%(OECD 84.1%), 20~24세 49.5%(OECD 41.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 8.3%로 OECD 평균(15.7%)보다 낮았다. 다만, 만5세 이하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하였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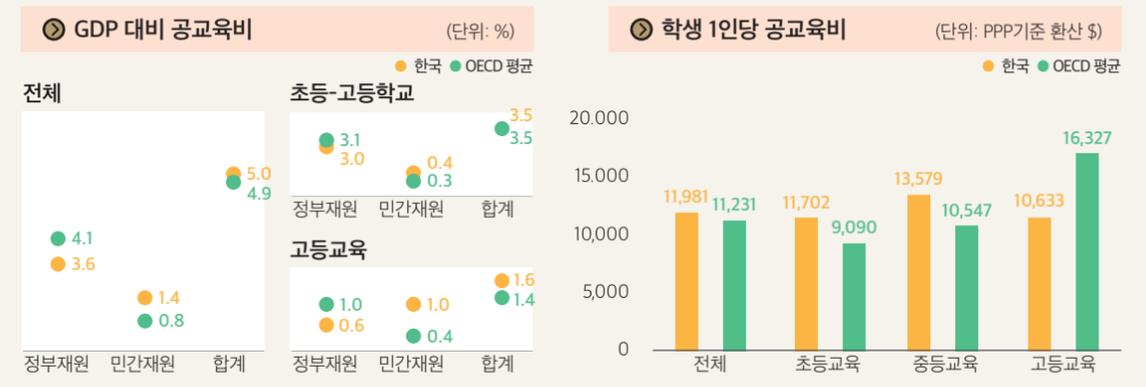
	만3세	만4세	만5세
한국	92.3%	93.8%	97.2%
OECD 평균	78.1%	88.2%	94.5%

2020 우리나라 OECD 교육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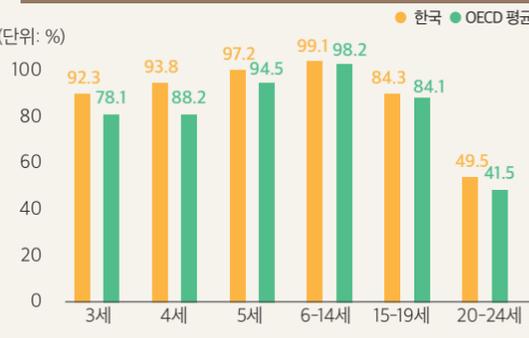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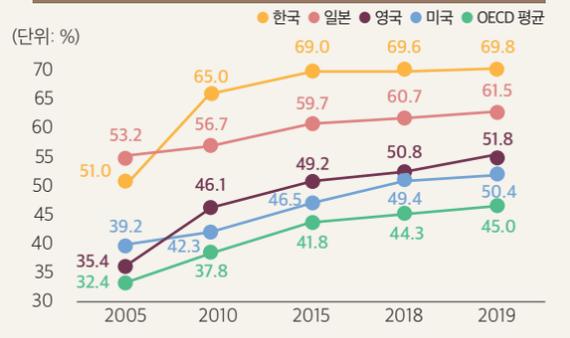
GDP 대비 공교육비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령별 취학률 (기준연도: 2018년)



고등교육 이수율(24~34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교원('18~'19년), 재정('17년), 교육 참여·성과('18~'19년)

왕따 당해봐서 참 다행이다

글 성완 남지고등학교 교사

친구네 집 앞에 있던 구멍가게가 문을 닫더니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다. 카페가 들어선다고 했다. 친구 말로는 우리와 동기인 A의 가게인 듯하다고 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그렇구나”라고 대답했다. 잔인한 내 기억은 녹화된 영상을 보듯 아주 생생하게 내게 학창 시절을 보여주었다.

A는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나를 유난히 싫어했다. 사춘기 소녀 마음에 굴러들어온 돌이 쉽게 맘에 들 리가 있겠나마는, 성격이 유순하지 못한 나를 미워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 당시 나는 그 아이만큼 고약한 성격을 지녔던 것 같았는데, 그 아이보다 많이 나약했다. 급우들 앞에서 내가 여러 번 망신을 당하자 다들 나와 다니는 것을 꺼렸다. 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퐁퐁 닫고 숨어 있었다. 하루는 종이 치자 선생님의 부탁을 받은 반장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번기 위로 올라가서 발을 안 보이게 숨겼었다.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승용차 안은 장례 행렬의 맨 앞차 분위기처럼 침울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친구는 소위 내가 설치하는 것이 싫었나 보다. 뒤에서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으며 대놓고 미워하기 일쑤였다. 입시 준비보다 그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괴롭히곤 했었다.

20살이 되면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감옥을 탈출하고, 하늘을 나는 백로처럼 대학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꽤 경력이 있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 교사를 하면서 나는 하늘에, 아니 그 A에게 무척이나 고마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 학교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학급의 학생에게 내 과거 얘기를 털어놓으며 같이 울 뻔한 적이 있었다. 학생과 나는 서로를 짝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상담 시간이 고마움을 느낀 첫 순간이었다. 나는 수업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혹시 어릴 적 나처럼 담임한테 말도 못 하고 끽끄거리는 친구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또 칭찬

한마디를 가볍게 하지 못하였다. 혹여 내가 누구누구만 예뻐한다고 오해하여 다른 친구를 질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그저 아이들이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길 바랄 뿐이었다. 아이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곧 인성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것은 아닐까 가끔은 반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하였다.

매년 교원능력평가를 실시하는데, 작년 결과를 열어보니 우리 학급 아이들이 내게 주는 사랑이 그득그득 담겨있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평등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그 A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순간이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릴 듣냐며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오늘도 학생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꽃보다 예쁘다.
어떤 아이는 속눈썹이 참 촘촘하고,
어떤 아이는 웃을 때 드러나는 덧니가 예쁘다.
어떤 아이는 목소리가 정말 멋지다.
신기한 일이다.
내가 학생일 땐 학교가 지옥 같았던 때가 많았는데,
나의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 같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왕따 당해봐서 참 다행이다. ㉠

가을에 떠오르는 시, 운동주의 <별 헤는 밤>

글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운동주 시인은 자기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반성과
어두운 역사를 견딘 초상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66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99

尹東柱

운동주가 연희전문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에는 모두 열여덟 편의 작품과 <서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시집의 서문이 함께 실렸다. 그는 시집을 구성하면서 <별 헤는 밤>을 마지막 작품으로 배치했는데, 1941년 11월 5일에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작품은 가을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는 운동주의 우주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명편이다.

부활의 예감을 통한 희망의 차원

시집 첫 작품인 <자화상>과 함께 이 작품은 가을밤을 시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자화상>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엾이 여기고 다시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과정을 통해 “추억처럼” 남은 사나이를 노래했던 운동주는, ‘우물 안 사나이’에서 ‘밤하늘의 별’로 시선을 옮겨 별을 헤면서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는 과정을 이어간다. 이때 그는 ‘혜다’라는 함경도 방언을 썼는데, 이 단어에는 ‘세다’라는 원래 의미와 함께 ‘뜻을 헤아리다’ 같은 부가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작품에 제격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 작품의 제목이 ‘별 헤는 밤’이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운동주가 불러보는 기억 속의 이름은 성장기를 함께했던 친구들, 이국 소녀들, 시집가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아이들, 가난한 이웃사람들,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그리고 프랑스 시인 잠과 독일 시인 릴케이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이 작품이 쓰이기 얼마 전에 발표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문장』 1941. 4.)에 대한 오마주(hommag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주는 백석 시편을 닮은 순서로 호명 과정을 수행하고 난 후 자신의 시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감으로써 선행 시편을 넘어선다.

그 하나는 “어머님/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작품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장면이 있다. 이 표현을 통해 이 작품은 에누리 없이 일제강점기에 망명의 땅 북간도를 떠나 한반도 중심에 들어와 유학 생활을 하는 청년 운동주의 것으로 정착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주가 부른 마지막 이름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결국 ‘별’에 의지하여 부른 이름이 된다)에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을 써서 흠을 덮어버린 그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라는 부활의 예감을 통해 이 작품을 새로운 희망의 차원으로 탈바꿈시킨다.

‘부끄럼’에서 ‘자랑’으로

이처럼 운동주는 시집 첫걸음을 “한 점 부끄럼”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을 “자랑처럼”으로 끝냈다. 이 구조는 부끄러운 이름을 쓰고 흠으로 덮어버리고 자랑처럼 풀이 재생하는 과정으로 짜여 있는데,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그대로 대응되는 은유적 상관물이 “(부끄러운) 내 이름자”이다. 운동주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풀의 생태를 통해 ‘부끄럼’이 ‘자랑’으로 재생하고 부활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이 과정은 수난과 영광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시련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견디겠다는 자세도 포괄하고 있다. 시집 서문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괴로워했던 윤리적 성실성을 보여준 그는 불가피한 운명과 함께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집 끝에 <별 헤는 밤>을 수록함으로써 자기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반성과 어두운 역사를 견딘 초상을 아름답게 보여준 것이다. ‘부끄럼’에서 ‘자랑’으로 옮겨가는 실존적 전이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진 <별 헤는 밤>을 가을밤에 떠올려보는 까닭이다. ⑦

무기력한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

글 김서규 / 경기대 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교사의 질문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마냥 엎드려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원격수업 시간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클릭만 해놓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니 더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A

선생님, ‘책상에 엎드려 널브러진 아이들’은 이미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학생책임’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문제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 수행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의 유형

01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1964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24마리의 개 실험을 통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체념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새마음을 먹고 출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아이들이 ‘엄마, 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교실 책상에서 널브러집니다. 이 아이들을 타박하기 전에, 착하고 기특한 마음으로 새출발했던 횡수를 세어보고 분투 끝에 꼬꾸라진 사연을 같이 살펴보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책 기존의 시도 중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출발하도록 도와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02 공포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성적, 시험 칠 때마다 어깨를 누르는 압박감, 부모님의 꾸중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는 수식과 도표, 공부하라는 말은 수십번도 더 들었지만 더욱 격렬하게 놀고 싶은 마음... 이런 걱정이 누적되면, 머리로는 공부하자고 다짐하지만 몸은 한사코 책을 피하는 공부 공포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대상인데도 오히려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뻔질이로 낙인찍히는 이차 피해에 시달립니다.

대책 트라우마 치료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아이의 얼어붙은 심신을 풀어줄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후, 학습된 무기력을 풀어줄 학습 멘토가 필요합니다.

03 출발이 늦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꼼꼼하기 때문에 누군가 깨알 같은 지침을 내려주기 원합니다. 그때 의욕만 강조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그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만 하시면, 이런 아이들은 출발을 어려워하면서 꾸물거려다 뒤처집니다. 이 아이들은 일단 출발하면 중간과 끝맺음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책 계획을 짜서 첫걸음으로 옮기는 법을 함께할 플래너 멘토가 필요합니다.

04 공부 의욕이 없는 아이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공부는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 1983년 미국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사람에게겐 공부에 대한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중 지능이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한 아이는 학과 공부에 대한 지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 외적 문제(가족, 실연, 따돌림 등)로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도 책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매우 정상이지만 학과 공부를 못하고, IQ는 정상이지만 학과성적이 하위 1/4에 속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들을 학습부진이라 하는데, 이들은 뭉뚱그려 ‘공부 못하고 게으른 아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대책 아이의 적성을 발견하고 이끌어줄 진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습부진이는 지능검사로 이유를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②



이번 10월은 추석과 함께 맞이한 달이었죠. 코로나 상황에서 맞은 추석이라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명절 풍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추석'을 주제로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과 사연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맞은 첫 추석 명절,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운동회'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구영목 혜화병설유치원 교사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놀이 한마당^^ 코로나로 답답했던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신체적 욕구를 발산하고, 나아가 우리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정말 좋았고 즐거웠어요♥



이명주 문태고등학교 교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관내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님을 찾아뵙고, 삼삼오오 돈을 마련해 구입한 추석 선물을 전해드리고 동시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국가유공자님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실제 유공자님 앞에서 낭독하며 더욱 훈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완 남지고등학교 교사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하여 5일이지만, 격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이나 됩니다. 학생들은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생활계획표와 공부 계획을 작성하였고, 그에 맞춰 알찬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였습니다. 토끼처럼 어여쁜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학습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업,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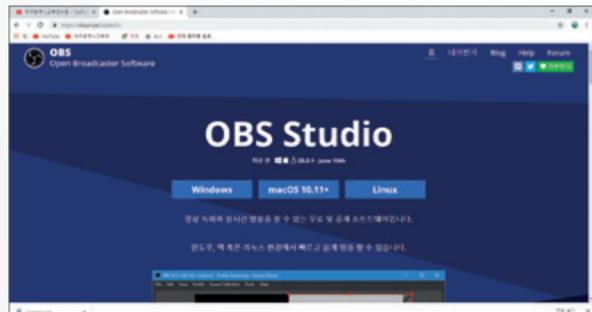
OBS를 활용한 수업 디딤 영상 만들기

원격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교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의 자료도 좋지만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직접 수업 디딤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OBS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콘텐츠 활용 수업에 쓰일 수 있는 나만의 수업 디딤 영상을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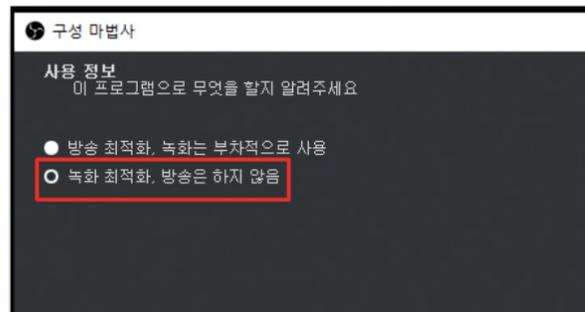
글 허성환 대구미래교육연구원 파견교사(지식샘터 지원단)

1. OBS 설치 및 사전 설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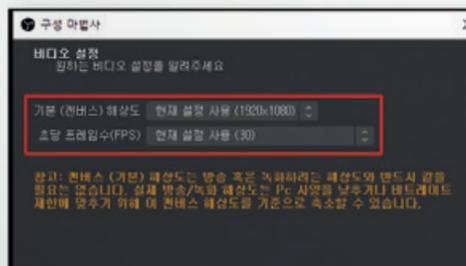
STEP 01 크롬 브라우저에서 'OBS'를 검색하거나 obsproject.com/ko에 접속하여 운영체제에 맞게 OBS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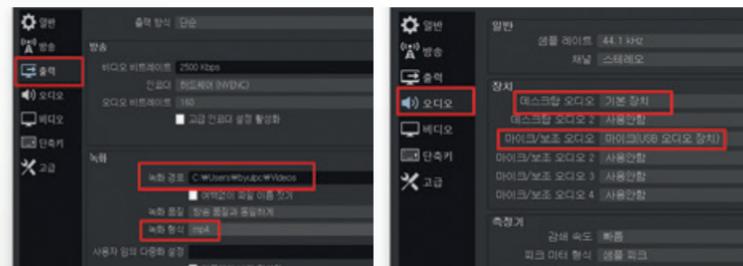
STEP 02 구성 마법사가 뜨면 '녹화 최적화'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합니다. 참고로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EP 03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비디오 설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해상도 1920x1080, 초당 프레임은 30으로 합니다. 초당 프레임은 숫자가 높을수록 자연스러운 영상이 되지만 용량이 커지므로 기본값 30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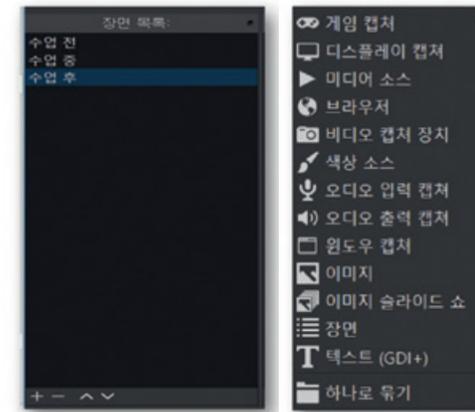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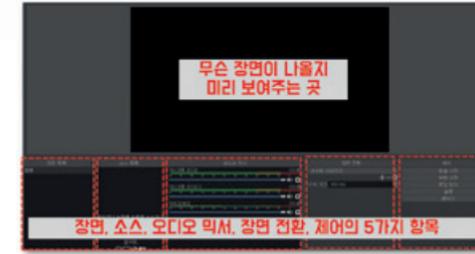


STEP 04 설정에서 출력 탭을 선택하면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는 경로, 녹화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 비디오, mp4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오디오 설정 탭에서는 데스크탑 오디오, 마이크/보조 오디오가 있는데 데스크탑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 마이크/보조는 외부 마이크 교사의 설명이 들어가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OBS 화면 구성 이해 및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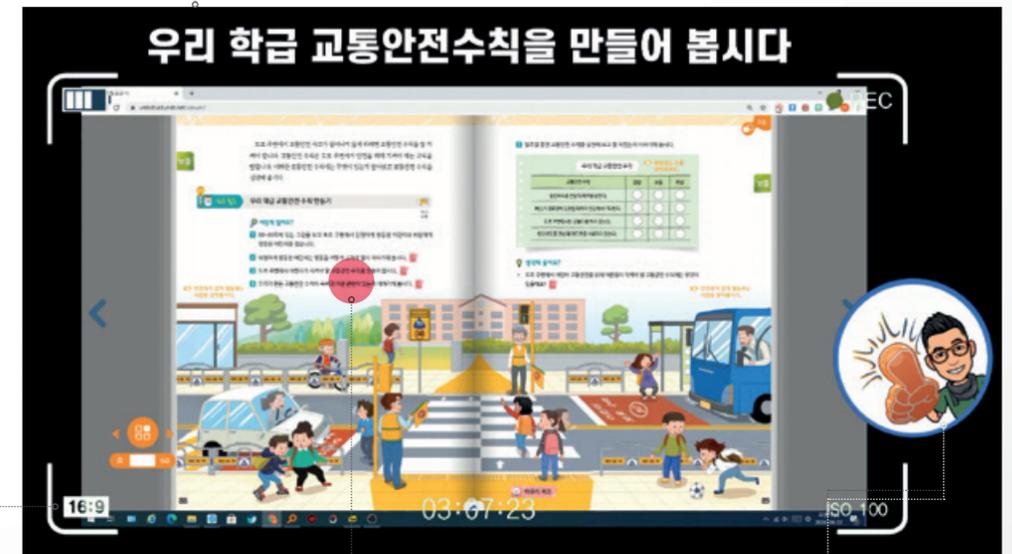
OBS의 기본 화면은 왼쪽 그림과 화면 중앙에 모니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장면, 소스, 오디오 믹서, 장면 전환, 제어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 모니터는 어떻게 장면을 구성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연출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는 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게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장면 전환에서는 장면이 바뀔 때의 효과를 보여주는 탭입니다. 제어 항목에서는 방송, 녹화 시작 항목이 있으며 설정값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이나 소스를 +, -, ^, v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캡처 : 모니터 화면
- 미디어 소스 : 비디오, 오디오 파일
- 브라우저 : 특정 사이트
- 비디오 캡처 : 웹캠, 카메라
- 색상 소스 : 배경색 지정
- 윈도우 캡처 : 특정 프로그램 창(PPT, 교과서 pdf 등)
- 이미지 : 특정 이미지 파일
- 이미지 슬라이드 쇼 : 지정 이미지 순서대로 등장 및 반복
- 텍스트(GDI+) : 자막

텍스트(GDI+)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디어 소스를 가지고 실험 중이라는 표시나 배경음악을 넣어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를 이용하면 디지털 교과서나 ppt 등을 가지고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웹캠)나 이미지 기능을 이용하여 교사의 모습이나 캐릭터를 넣어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FOCUS 01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국제포럼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논쟁성 재현은 왜 중요한가?

지난 9월 19일(토)에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번 국제포럼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논쟁성 재현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인하여 온라인 생방송(한겨레TV)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메이라 레빈슨(하버드교육대학원) 교수가 '논쟁수업과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으며, 2부는 '선거교육의 주요 쟁점', 3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학교에서 사회적, 정치적 논쟁적인 이슈를 가르치는 것

먼저, 메이라 레빈슨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논쟁수업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열린 질문과 합의된 질문에 대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논쟁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열린 질문은 여러 관점에서 경쟁할 논쟁적인 이유가 있는 합당한 견해를 말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된 질문은 과거에는 열린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논쟁적이지 않은 질문을 말한다. 이에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논쟁수업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열린 질문'과 '합의된 질문'으로 판단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들과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 발달상 부적합하거나 교사들이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설규주(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논쟁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논쟁적인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극단적인 견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할지, 논쟁수업에서 자료의 사실판단 여부,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다룰 때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 논쟁수업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메이라 레빈슨 교수는 논쟁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뉴스,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친구 또는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논쟁적 이슈에 대하여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 토론·토의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본인 의견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메이라 레빈슨 교수와 의견을 나누면서 설규주 교수는 "학교현장에서의 논쟁을 다루는 수업 등 여러 노력이 시민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거교육의 주요 쟁점을 논하면서

2부에서는 '선거교육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올해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거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 선거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형섭(강릉고등학교) 학생은 '교복 입을 시민에게 만18세 선거권과 선거교육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형섭 학생은 "선거교육은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

남미자(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생(청소년)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가?'를 주제로 교육의 대상과 정치적 주체 측면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만18세 선거권의 의미(정치적 권리, 시민, 의사결정의 주체)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 선거교육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동(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 선거교육의 쟁점과 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선거교육과 학생시민 육성의 핵심 통로로서의 선거교육을 논하였다. 그리고 학생 선거교육의 쟁점 과제로 학생시민 상(像), 학생 선거교육의 추진 전략(방법), 학생 선거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선거교육의 주요 쟁점' 발제 및 토론이 끝나고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국제포럼' 한겨레TV 화면. TV 화면에 메이라 레빈슨(하버드교육대학원) 교수와 스튜디오에 설규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연경 사회자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국제포럼' 한겨레TV 화면.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동빈(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대훈(인천 신현고등학교) 교사, 안상태(강원 금산초등학교) 교사, 김원석(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신인수(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FOCUS 02

김광일 명예기자(구미형곡고 교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조금 더 쉽게 잘 하기 위한 팁 Top3

9월 15일, 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방침 발표와 함께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가 권고되었다.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와 대화를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는 수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계속되는 변화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해오신 선생님들의 운영 노하우를 모아보았다.

Tip1. 수업 전체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돼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가 한 시간 동안 라이브로 강의만 하는 수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단방향 수업이죠. 실시간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과제가 꼭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과 만나서 오늘 해야 할 과제를 안내하고, 참고 영상을 안내하는 것까지만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점검과 피드백은 때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거나, 제출한 결과물을 보고 만든 영상을 줄 때도 있고, 과제물에 직접 피드백하기도 합니다.

Tip2. 수업 녹화를 꼭 해둡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거나 수업 진행 중 학생들의 접속이 끊기거나 할 때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수업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고, 갑자기 튕겨던 학생들에게 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업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접속 불량으로 어쩔 수 없었던 학생의 수업 결손 부분을 시험에 출제해 불이익이 있거나 하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줌, 구글미트, MS팀즈, 교실온타임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화상회의형 플랫폼은 녹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녹화 기능을 항상 켜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튕긴 학생들이 있더라도 수업을 끊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 수업을 놓친 학생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3. 수업을 돕는 다른 툴들을 활용합니다.

화상회의 형태의 플랫폼만으로는 학습을 위한 소통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접속하여 기록하고 쓸 수 있는 공유 문서를 주로 활용합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퀴즈를 내고 확인하기도 해요.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수업 내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유 게시판을 제공하는 패들렛, 학습지를 온라인 형태로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 라이브워크시트 등 각종 툴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도 하더라도 단조롭게 화상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 수업의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FOCUS 03

한은경 명예기자(양지고등학교 교사)

“우리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입시를 코앞에 둔 고3 교실은 예외로, 긴장감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다. “애들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의 꿈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



FOCUS 04

게임으로 영어 배우는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캠프'

문승욱 명예기자

지난 9월 14일 부산초(교장 신봉휴)에서는 6학년을 대상으로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어캠프'를 실시했다. 원어민 영어교육 수혜가 부족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우선으로 원어민 교사와 영어전문교사를 학교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 일일캠프형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체험학습 등 과외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가 되었다. 이날 캠프에는 원어민 교사 3명과 지원담당 선생님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교재를 준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요가, escape room(방탈출게임), 재활용을 주제로 과자봉지 파우치(필통) 만들기 등 원어민 교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등 재미있는 영어체험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여한 이치우 학생은 "영어를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재미있고 쉽게 느껴졌다."라고 전했다.



FOCUS 05

"꿈을 찾아라" 자유학년제 Dream Up 진로캠프

이대송 명예기자

양산희망학교(교장 정승욱)는 9월 17일(목)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Dream Up 진로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유학년제 Dream Up 진로캠프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꿈 사진 찍기, 꿈 책 만들기, 꿈 발표대회, 끼 자랑대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비전을 세워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승욱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꿈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꿈 발표대회에서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 꿈을 이루어나갈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코로나19도 아이들의 꿈을 막을 수 없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식샘터 for teacher



← '지식샘터'가 궁금하다면?